탐진강,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탐진강에 각종 분수가 설치되는 등 주민 휴식공간이자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장흥군 90억 들여 생태관찰로·징검여울 등 조성
'물 축제' 주무대 안에 선라이트 보도블럭 설치도

탐진강이 자연형 하천으로 변신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04년부터 국비 65억2천만원과 군비 24억9천700만원 등 90억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탐진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형 하천사업은 호안과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평여울 및 징검여울 설치로 생태식물이 자라고 각종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남진 물축제 등 각종 공연 중심 무대로 쓰일 4천850㎡ 규모의 석대보 광장이 들어섰으며 물고기 체험장(629㎡)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퇴적토 준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원 설치, 생태 관찰로 1.72㎞ 포장, 자연석 호안 1.83㎞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꾸며진다.

생태습지공원은 13만2천여㎡의 면적에 사업비 12억6천700만원을 투입해 자연석 호안과 산책로, 지압로, 목재 데크가 들어서고 각종 수생식물 식재와 분수 설치로 산책과 운동 코스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이밖에 탐진강 석보대 안에 3천300여만원을 들여 태양광 조명으로 선라이트 보도블럭도 설치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탐진강이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완비해 각종 축제의 주무대와 주민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민선 4기 2년 결산과 과제

■신정훈 나주시장

"교육·의료 질 높여 혁신도시 건설 매진"

영산강 황포돛배 관광자원화
남양유업 유치 일자리 창출
문화재연구소 건립 순조

"현 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고 있는 '혁신도시'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유치를 계기로 100년 미래의 웅대한 희망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로 민선 4기 3년째를 맞는 신정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8일 혁신도시 기공식장에서 발파버튼을 누를 때의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짧은 기간동안 토지보상 목표를 달성해 기공식을 열었던 역량을 밑거름 삼아 지역발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자"고 지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립 영산강고고학박물관과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30여년간 끊겼던 영산강 뱃길도 황포돛배를 띄워 관광자원화 시켰다.

입장객 100만명을 돌파한 삼한지 테마파크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천634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11년에 완공될 296만㎡ 규모의 미래 일반산업단지는 나주의 지형을 바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남양유업과 나주워터파크는 5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 활력 회복과 농촌마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122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타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농기계 임대사업과 청보리재배 활성화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연구해서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이전기관과의 유대강화와 교육, 의료분야의 대안을 마련, 혁신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선 4기를 맞아 획기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갖춘 나주시가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의 후유증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신정훈 시장이 공산 화훼단지조성 사업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돼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 미래·광양 익신산단
道, 신청 3개월만에 지정

전국 최초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 미래산업단지와 광양 익신산업단지가 산단신청 3개월만에 전남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10일 나주 미래산단과 광양 익신산단 지정 신청건에 대해 기존 1~2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 3개월만에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고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단 지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 것은 투자유치 총력의 해를 맞아 전남도가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이 요구한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지원 TF팀'을 편성해 농지·산지분야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기관 이견 조정과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조기 지정으로 사업시행자는 이달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올 12월께 착공, 2011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에 4개과 신설

광양시에서 100억 지원받아 시유지 매입
대책위 '이전 반대 10만명 서명운동' 돌입

순천대학교가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광양캠퍼스에 공대 계열 4개 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순천대 김광수 기획처장은 10일 "광양시로부터 부지 매입 예산 100억원을 지원 받아 시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며 "광양시가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1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광양캠퍼스 건축비는 순천대학교가 자체 예산 210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양시가 매년 50억원을 광양캠퍼스에 지원해주기로 했다"며 "교육과학부로부터 광양캠퍼스 설립 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포스코가 있는 광양의 경우 세계적인 철강·항구도시로 발돋움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순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광양캠퍼스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양캠퍼스를 설립해야 포스코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을 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순천대학교 전체 재학생 중 30% 가량만 순천시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순천시를 제외한 전남 동부권 시·군에 거주하고 있다"며 "순천대학교가 순천시민들의 협조로 발전을 했지만, 순천시민들 만을 위한 순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대 광양캠퍼스 광양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순천대 광양캠퍼스 인전 반대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광양캠퍼스 이전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순천대 광양캠퍼스 이전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안 한·중산단 자본금 1,100억 확보

무안기업도시 안에 들어설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 1천1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 이달 중 개발계획을 신청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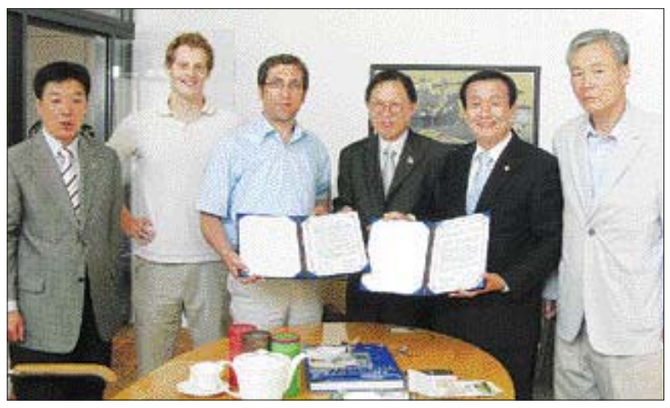
무안군은 10일 "중국 투자사인 동태화안유한공사가 이날 284억원을 추가납입해 중국측 납입자본금이 561억원에 달해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자본금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목표자본금은 총 1천528억원으로, 이중 국내 출자사인 농협중앙회, 벽산건설,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등이 539억원을 납입해 국내·중국 자본금을 합쳐 현재 1천100억원, 목표액의 약 72%가 확보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성 녹차 유럽 수출길

올 연말까지 2천t 규모
현지 5개사와 협약 체결



판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성 녹차의 유럽 수출길이 열렸다.

보성군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08 한국기업초청 유럽 수출박람회'에 참가해 독일 마운트 에베레스트사와 클로드 앤 쿤켄, 프랑스 쌍떼날 등 5개 회사와 보성녹차 전시·판매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유럽 한인경제인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정종해 보성군수와 녹차 제품회사 관계자들이 직접 참가해 세일즈 활동을 펼친 결과 보성녹차가 세계적으로 맛과 향, 색이 우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성군과 MOU를 체결한 회사들은 프랑스 쌍떼날, 독일 마운트 에베레스트, 클로드 앤 쿤켄, KOIA 등 유럽 현지에서 차를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현지에서 직접 보성녹차의 품질을 높이 평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이전 유럽 식품 가능 인증을 받아 2천t 규모의 녹차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미국에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보성녹차는 유럽 시장까지 확보해 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차 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해 군수는 "보성녹차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을 제고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녹차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정적인 판로 개척으로 재배농가들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과 유럽한인경제인연합회는 앞으로 보성녹차의 홍보와 수출을 위해 초청 방문 등 상호교류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